

광주지방조달청,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간담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종열)은 7일 광주시 내 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16개 회원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지역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는 물론 조달청의 여성기업 지원제도 설명과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여성기업이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조달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강대 간호학과, 제3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강대학교 간호학과가 지난 8일 '제3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실시했다. 간호학과(학부장 조명숙)는 본관 나이팅게일홀에서 2학년 205명을 대상으로 선서식을 갖고, 송고한 희생·봉사정신과 사명을 다짐하며 간호전문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예비 나이팅게일을 축하했다. 이날 선서식은 선서서 보고, 촛불 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이민숙 총장 격려사, 광주시 간호협회 김숙정 회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 학부모와의 간담회, 간호학과 교수와 산업체 관계자들이 취업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오토랜드광주, 서빛마루시니어센터 후원



기아오토랜드광주 임직원들이 지난 7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관장 이원영)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문화 체험활동을 함께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아 '케어 위크(Care week)'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기아오토랜드광주 임직원 및 센터 이용객 총 50명이 참석했으며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차, 보온팩, 무릎담요, 텀블러 등으로 구성된 겨울나기 꾸러미(5만원 상당) 100세트를 센터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또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오색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현대산업개발, 후원금 1천만원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8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사랑의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후원금은 소아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이 환우와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 개선 지원, 5·18역사공헌 나무 심기 봉사,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차량 지원, 농성빛어울림재조합사회복지관 심포니 작은 도서관 개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최근 담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청소년유해업소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담양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홍보문구가 적힌 팸플릿과 볼펜 등을 나누어주며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 청소년유해업소, 편의점 등을 방문,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부착여부를 확인 후 미부착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을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인사

◆국제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협력담당관실 강민성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벽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흥영표 ▲대구지방국세청 박규동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정상봉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ay.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11일 己卯)
36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48년생 점예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60년생 여러 갈래로 세분되면서 점점 복잡해질 것이다. 72년생 보고도 못 본 체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체해야 한다. 84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96년생 원칙과 순서에 따라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77
37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정을 부르리라. 49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으나, 61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73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85년생 방도는 좋으나 여견이 조성되지 않는다. 97년생 근본 원년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3, 95
38년생 갑금에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50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62년생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74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86년생 실용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아. 98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14, 83
39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51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으나, 63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으니라. 75년생 부실한 결과를 조려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87년생 한계 상황이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99년생 잘 되어 있으니 두경만 열면 된다.
행운의 숫자 : 39, 75
40년생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단계이다. 52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경기는 것도 중요하다. 64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민감하라. 76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라. 88년생 성과를 확인한다면 당장 실행해도 된다. 00년생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81
41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이익이니 모든 미련을 버려라. 53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65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우순은 풀이 되리라. 77년생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89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01년생 실로적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88
42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54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66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78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90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02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행운의 숫자 : 08, 92
43년생 변통할 여지가 없이 외곬에 놓여 있다. 55년생 상당한 재안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67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79년생 구체적인 일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91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다. 03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58
44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56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68년생 수고로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대응하라. 80년생 약 조건이 오히려 흔재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92년생 고귀히 봄을 만나서 씩씩 트일 수 있다. 04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행운의 숫자 : 16, 87
45년생 구분 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5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69년생 무슨 일이든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다. 81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93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05년생 생 좌적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0, 91
46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58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70년생 가끔씩 빨리 시작해야만 겨우 끝낼 수 있는 바탕이다. 82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장래가 밝아온다. 94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라. 06년생 취하면 임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85
35년생 이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47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 59년생 비취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71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83년생 기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아. 95년생 치열한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0